

토요일이면 폴란드 식품품 가게는 식자재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붐빈다.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으로 인해 전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풍경이다.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쇼핑 장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지 법안의 목적은 소매점포의 부흥이었으나 취지와는 달리 편의점과 디스카운트(할인점) 매장이 호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소매점포 수의 감소와 현대인들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웃고 있는 폴란드 편의점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을 피해간 자브카(Zabka)

영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Tesco)는 폴란드에서 4개의 대형 하이퍼마켓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과 디스카운트 매장의 성장에 수익 악화로 이어져 폐쇄 요인이 되었다. 반면 폴란드의 대표 편의점 브랜드 자브카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오프라인 상거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주유소, 약국, 우체국, 동물 병원의 예외 사항을 이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8년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대체재로 테스트 매장 7개를 내며 시작한 자브카는 현재는 2백만 명 이상의 고객과 5,817개의 체인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1,200만 명 이상의 폴란드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자브카 매장에서 300m 미만 떨어진 곳에 산다고 집계된다. 폴란드 편의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소비 성향과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폴란드 유통 채널 내 편의점의 비중은 2018년 9.8%에서 향후 11%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자브카는 공격적인 확장으로 편의점 분야의 선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연간 60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시 세끼를 대체하는 제품 라인업 개발

폴란드인들은 바쁜 일상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식사 대용 제품을 찾고 있다. 편리한 포장과 한 번에 먹기 좋은 양의 간편식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덕분에 쇼핑의 속도와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편의점에서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모든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기획하고 있다. PB 브랜드로 폴란드 전통음식, 이탈리아나 베트남 음식 등 다양한 이색적인 맛을 제공한다. 또한 2017년 폴란드의 일식 즉석식품 제조공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간편한 일식 요리도 라인에 포함하였다. 현재 편의점 간편식 냉장 코너에서는 오니기리, 스시, 도시락도 눈에 띈다. 편의점에서 발간하는 잡지 콘텐츠에도 아시안 간편식과 스시 홍보를 181% 이상 늘리고 있다. 아시안 식품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선호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려는 편의점 업계의 노력이 엿보인다.

편의점 간편식을 공략하는 한국 식자재

폴란드인들의 아시안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한편 편의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식품기업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소포장, 소용량 등 편의점에 적합한 간편식 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편의점 간편식은 종류와 맛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만큼 기술력이 발달해있다. 한국식 김치, 고추장양념, 불고기양념, 젓갈과 같은 식자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현지화한다면 한국 편의점 간편식의 정통 주자 '삼각김밥'과 '도시락' 같은 이색적인 메뉴는 폴란드의 새로운 한 끼 식사가 될 것이다.

